여수 금오도 육지 연결 해상교량 건설

총 연장 3.46㎞…해상교량 2곳
2025년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정주여건 개선·섬 관광 발전 기대

여수 금오도와 내륙을 잇는 해상교량이 건설될 예정이다. 트래킹 코스로 이름난 '비렁길'을 품은 금오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도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걷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금오도와 내륙을 잇는 해상교량이 놓인다.

트래킹 코스로 이름난 '비렁길'을 품은 금오도는 해상교량 연결로 여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남은 물론 여수시내와 차량으로 30분 거리로 가까워짐에 따라 정주여건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영규 시의장과 도·시의원, 주민 대표 20여명은 금오도에서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총 연장 3.46㎞(해상교량 1.53㎞, 2개소)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입찰과 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오도는 여수만 남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지형이 자라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금오도는 대부분이 암석해안으로, 소규모 만과 갑이 발달해 수려한 해안 절경을 자랑한다.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하며, 깍아지는 절벽의 비렁길과 일출·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등산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비렁길은 트래킹코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등 금오도는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뭍으로 나가는 교통수단은 배편이 유일하다. 섬 주민들은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아 배편을 걱정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노심초사하며 생활해야 했다.

금오도 해상교량은 2021년 발표된 일반국도·국가지방도 승격 계획에는 금오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지우기 어려웠다.

이후 전남도가 움직이기 시작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금오도 교량 연결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민선 8기가 출범하고 7월 첫 당정협의회에서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사업비 절반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정 시장은 지역민 면담을 거친 후 지역 정치권과 섬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남도를 직접 찾아갔고 금오도와 내륙을 잇는 해상교량 건설을 현실화했다.

해상교량이 완공되면 섬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시내권까지 30분 내로 오갈 수 있게 된다.

응급상황에서의 긴급한 대처는 물론 교육, 문화, 생활여건 등 모든 면에서 섬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여수 돌산에서 고흥 팔영을 잇는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게 돼 요즘 떠오르는 남해안 섬 관광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해상교량 건설이 확정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전남도 '지역특화조림' 공모 선정

5개 지구 34.5ha규모 조림 사업

보성군이 지역특화조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보성군은 2023년 전남도 '지역특화조림' 공모에 선정, 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개 지구에 34.5ha규모의 특화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암나무(헤이즐넛)와 호두나무 등 2종을 집중 식재해 고소득 임산물 생산단지를 가꿔나갈 계획이다.

사전 준비작업으로는 대상지 입목벌채 허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입목벌채,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식재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배 및 경영관리로 투자 대비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타 재배지역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암나무 열매는 헤이즐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식용 견과류다. 특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향기 때문에 고급 향신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커피 향신료로 쓰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2년까지는 따뜻한 지역에 황칠과 두릅단지 조성에 지원해 왔으며 2023년도에는 보성 지역의 산림 지형과 기후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잘 사는 산촌을 만들어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취약계층 54세대 '사랑의 땔감 나누기'

숲 가꾸기 부산물 장작 전달

구례군은 최근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사랑의 땔감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4세대를 신청받아 지원했으며, 고유가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 땔감은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수집한 후 장작으로 만들어 가정마다 직접 전달했다.

김순호 군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 조성, 일자리 창출, 땔감 지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등 협력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와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는 지난 4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박람회조직위 노관규 이사장과 한국여행업협회(KATA) 오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상호 협력 및 공동마케팅 협력 지원 ▲협력사업 및 공동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침체된 여행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을 위해 순천시와 꾸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관규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은 "정원박람회는 단순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도시의 표준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는, 박람회 자체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커다란 콘텐츠"라고 강조하며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2천여 개의 여행사와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여행서비스 향상 및 가치 창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여행업 단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유자 찍고·선물 받고·힐링하고

10~13일 고흥 유자·석류 축제
송가인 콘서트·체험행사 다채

고흥군이 10일부터 13일까지 '2022 고흥 유자·석류축제'를 개최한다.

'고흥 유자랑 석류랑 힐링~ 힐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샛노란 유자밭 가운데 축제장을 만들어 고흥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는 고흥군 전속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퍼포먼스 후 송가인 라이브커머스 및 미니콘서트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연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릴 계획이다.

'유자 찍고·선물 받고·힐링하고'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고흥 유자 첫 재배지인 대청마을의 '대한민국 유자 1번지길'과 양리마을 '유자 금은보화 둘레길'을 축제 무대로 삼았다.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유자향 가득한 둘레길에서 추억을 쌓고 힐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제 기간 ▲유자·석류청 담그기 단체 체험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제품 판매 ▲유자석류 가요대전 ▲글로벌 유자&석류 힐링왕 선발대회 ▲달빛유자 낭만석류 가을 콘서트 등이 준비됐다. 축제에 맞춰 '제1회 고흥 9미 전국 요리경연 대회'를 개최해 고흥의 맛과 멋을 뽐내는 시간도 마련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축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축제장 내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해 축제장 전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